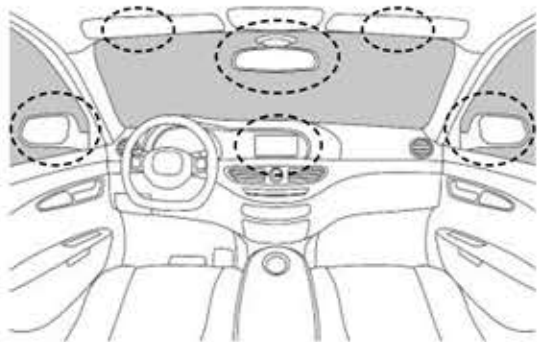




## 운전자의 또 다른 눈! 자동차 미러의 모든 것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나거나 주변 차량이 접근하는 등 다양한 돌발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전방은 물론, 좌, 우, 후방까지 주변 교통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때 룸미러, 사이드미러 등 다양한 자동차 미러가 운전자의 또 다른 눈이 되어준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리의 안전을 확보해주는 거울! 자동차 미러에 대해 '키즈현대' (kids.hyundai.com)가 설명했다.

### ■ 뒤쪽 상황을 보여주는 '룸미러'



룸미러(Room Mirror)는 운전 중에 자동차의 뒤쪽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 1911년,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자동차 대회에서 처음 탄생했다. 당시에는 자동차 경주 시, 정비사가 함께 탑승해서 뒤쪽 상황을 알려줘야 했는데 엔지니어이자 레이서인 '레이 하운'은 차량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정비사의 좌석을 떼고, 그 대신 뒤쪽을 살펴볼 수 있는 룸미러를 스티어링 휠 앞에 설치했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흐른 지금의 룸미러는 운전 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중간 지점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눈부심 현상을 예방하는 ECM(전자 감응식 실내 미러)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어두운 밤에 운전할 때는 뒤 차량의 전조등 빛이 룸미러에 반사되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ECM은 뒤차 전조등의 빛을 센서로 감지하여,

룸미러의 반사율을 알아서 낮춰준다. 만약 ECM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면, 룸미러의 위치를 조금 높여 주면 좋다.

### ■ 측면 상황을 알려주는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Side Mirror)의 정확한 이름은 사이드 뷰 미러(Side View Mirror)이다. 이름 그대로 자동차의 측면을 살피는 거울이다.

처음에는 룸미러가 사이드미러의 역할을 대신했는데 1940년대 이후, 차로가 늘어나고 고속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 대중화되면서 차선 변경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때, 측후방의 시야를 살피기 위해 사이드미러가 등장했다.

초반에는 보닛 옆에 장착되어 있었지만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넓히고 공기저항을 낮추기 위해 A필러로 이동하여 지금의 사이드미러가 되었다.

사이드미러는 볼록거울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과의 거리감을 잘못 인식할 수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른 차량과의 실제 거리를 파악하고 싶다면 룸미러도 함께 확인해준다.

### ■ 선바이저 안에 있는 '배니티 미러'



배니티 미러(Vanity Mirror)는 선바이저(햇빛 가리개) 안에 장착된 거울이다.

1930년 이전에는 선바이저가 앞유리창 바깥에 차량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1930년 이후, 내부 장착으로 변경되었고 거울이 부착되면서 현재와 같은 배니티 미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배니티 미러의 배니티(Vanity)는 화장 테이블이라

는 뜻으로 이름 그대로 화장을 고치거나 용모를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쓰인다. 하지만 운전 중에 배니티 미러를 확인하는 건 위험하므로 정차 시에만 사용해야 한다.

### ■ 뒷좌석을 확인하는 '컨버세이션 미러'



운전 중 뒷좌석 탑승객과 대화를 할 때, 혹은 뒷좌석에 앉은 아이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싶을 때라도 고개를 돌려서 살펴볼 수는 없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컨버세이션 미러(Conversation Mirror)로 이름 그대로, 대화를 위한 거울이다.

대부분 룸미러 앞에 설치되어 있으며, 평소에는 닫혀 있지만 커버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쉽게 열 수 있다. 뒷좌석까지 넓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실내 면적이 큰 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다.

### ■ 자동차 미러, 기술로 더 편리하게!



자동차 미러를 도와주는 다양한 기술도 등장했다. 후측방 모니터는 방향지시등 점등 시 클러스터 화면에 후측방 영상을 띄워주는데 사이드미러 하단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운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4대의 고화질 카메라를 통해 차량의 전방, 측면, 후방까지 확인할 수 있다.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는 후진 중에 다가오는 차량이나 보행자를 레이더로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 주고 필요 시 브레이크를 스스로 작동하기도 한다.

사진=키즈현대



사장님,  
**칭찬해 주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 (323) 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